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Capital, Empowerment and School Adjustment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s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Byung-Jun Cho*, Moon-Sook Lee**

*Professor, Dept. Emergency Rescu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won, Korea

**Instructor, Dept. of Sports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diation of empowerment on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school adjustment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s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spss win ver 26.0 and amos 26.0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First, it was found that social capital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s particip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chool adjustment. Second, it was found that social capital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s particip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mpowerme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mpowerment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s particip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chool adjustment.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empowerment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s participation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between social capital and school adjustment.

▶ **Key words:** Leisure sports, Multicultural adolescents, Social capital, School adjustment, Empowerment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 및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D광역시, C도 지역의 여가스포츠 참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은 113부였다. 자료는 SPSS WIN VER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은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임파워먼트는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임파워먼트는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부분매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여가스포츠,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 자본, 학교적응, 임파워먼트

-
- First Author: Byung-Jun Cho, Corresponding Author: Moon-Sook Lee
 - Byung-Jun Cho (cho6451@gmail.com), Dept. Emergency Rescu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Moon-Sook Lee (fesaikho@hanmail.net), Dept. of Sports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Received: 2024. 12. 31, Revised: 2025. 02. 03, Accepted: 2025. 02. 03.

I. Introduction

한국의 사회구조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인권보호,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 적응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1][2].

다문화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갈등과 학업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서 혼란, 불안, 우울, 비행이나 자살 등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3]. 다문화 청소년 학생들은 언어에 대한 부담감과 문화에 대한 차이로 인해 비다문화 청소년들 만큼 공부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학습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교우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문제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학교적응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4].

청소년기에서 중학생뿐만 아니라 특히 고등학생 시기는 생애 발달 과정 중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또래관계나 주위 환경으로부터 요구되는 발달과업에 직면하면서 수많은 혼란과 갈등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5]. 이 과정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열망과 또래관계, 자기 인식, 타인 인식 등에 대한 관심이 보다 증가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투자하고 몰두하게 된다[6].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여 다양한 소수문화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문화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 다문화 공감대 형성 및 갈등 해소 등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문화 수용의 가치관을 조성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문화적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해서는 발달의 초기 단계에 놓인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7].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는 개인과 가족 수준의 보호요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 보호요인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8].

청소년의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학교 체계의 자원이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청소년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경우, 지역구성원이 청소년에게 신뢰감을 주고, 위협이나 어려움에 기꺼이 도우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학업과 발달과업을 수행하도록 지지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나 상황들을 감시하고 해결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자원은 청소년의 발달과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는 대안이 된다[9][10].

이와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는 다양한 생활환경에 있는 사람과 집단의 관계에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행동

을 이끌고, 목적을 실행하게 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정의되며[11], 인간관계의 정도와 깊이, 신뢰와 협력, 사회적 규범, 유형·무형의 자산과 자원, 지지 등으로 정의된다[12].

이웃과 긍정적 관계 정도로 간주되는 지역사회 인식, 봉사, 집단적 연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학교 구성원과 관계형성, 학교규칙에 따르기, 적절한 학교생활과 같은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9]. 특히, 사회적 자본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4-17]. 특히, 사회적 규범과 신뢰, 대인 간 신뢰와 네트워크의 정도는 이주한 문화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3].

이와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은 임파워먼트이다.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는 사회자본에 의해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4-17]. 특히, 사회자본의 획득으로 인한 긍정적 결과인 대인관계 역량 강화, 공동체 의식 함양, 자아존중감 향상이 임파워먼트의 종합적인 개념으로 주목되기 때문이다[18-20].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선택력과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개인 내부의 힘을 찾고 [21], 다른 개인들과 함께 협력하고 행동함으로써 [22]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다양한 자원과 정보에 접근하고 구축한 관계에서의 자본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자기 결정 및 내적 통제감, 권력을 획득하여 원만한 학교생활은 물론 삶의 주도성을 갖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자본의 긍정적 결과물이며,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요소인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켜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는 방안으로 학교 내·외에서의 여가스포츠 활동이 제시 [23-25]되고 있는데, 청소년기의 학교체육 및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의 효과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 참가는 학생들에게 친구에 대한 높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26]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포츠 동아리 활동이 대인관계와 유대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27][28],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가하는 여가활동으로서의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협동심을 가지도록 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서를 배우게 된다고 보고 [29]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가스포츠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인 정서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30], 태권도 수련과 같은 스포츠 활동 참가가 자아탄력성을 기르는데 이는 곧 임파워먼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청소년의 내,외적 문제행동을 줄이고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31].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의 여가스포츠 참여는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부정적 행동들을 예방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인 사회적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자신의 가치 및 건강과 학업에 대한 성취감 자기존중 등으로 해석되는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도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32].

이러한 여가스포츠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임파워먼트와 학교생활과의 직접적 효과를 밝힌 연구[33][32][34]는 다수 이루고 있지만,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및 여가스포츠 참여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여가스포츠의 참여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임파워먼트 및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여가스포츠 참여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중요성을 밝힐 수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질 것이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2.1. Related works

그동안 선행된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스포츠클럽 참가는 청소년들의 체력과 기능의 향상은 물론, 친구관계가 향상되며 이를 통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35]와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 간의 신체활동을 통해 활발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가스포츠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성 발달 및 사회기술 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36][37], 사회적 지지가 풍부한 사람이 학교생활 등에 적응력이 높게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다[38].

청소년들에게 임파워먼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행동으로 여가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많은 선

행연구들에서 임파워먼트를 구성하고 있는 변인들 즉, 개인내적으로 자아존중과 개인능력 및 집단인식 그리고 자기결정 등이 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적 구성요소는 지각관계 정서, 표현관계와 역할관계 및 자기통제를 말하며, 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 요소로 리더십과 사회 및 정치의식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임파워먼트에 대한 각각의 유사연구[39][40]와 청소년들의 행동 변화의 관련성에 대해 이미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스포츠 분야에서의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여가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변인이 향상되었다는 보고[41-43]와 여가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4]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여가스포츠 참가는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여가스포츠의 참가를 통한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과 본 연구의 설계에 대한 사회학적 인과관계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최근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체육학분야에서도 임파워먼트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44-46]되고 있다는 점을 미뤄, 청소년에 있어 스포츠활동과 임파워먼트 효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와 관련한 스포츠 분야의 연구는 미비한 상태인 만큼,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여가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여 임파워먼트를 가지게 되면 학업중단과 같은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는 스포츠 분야에 새로운 연구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구가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2. Previous literature

2.2.1.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youth

학교생활은 또래 및 교사 등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가지게 되며, 교과 및 비교과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지적 능력 뿐만 아니라 성숙한 자아를 형성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47].

청소년기에 학교생활적응은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발달과업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다양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며, 이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48].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경험은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 문화예술 등의 그룹 활동과 자원봉사와 같은 체험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토대로 공동체성 및 학교생활적응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49].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학교생활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2.2.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mpowerment of multicultural youth

사회적 자본인 신뢰는 서로를 존중하는 양식으로 행동하며 기꺼이 위험을 감내할 의지를 가진 사회적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 내부의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개입되어 진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옮겨가는 임파워먼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50].

청소년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51]와 청소년의 자생적 조직과 개발조직의 참여 유형별 임파워먼트에 대한 실천사례 연구[52]에서는 조직참여정도, 친구지지, 교사지지, 가족지지, 기타 성인지지 등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기초했을 때 청소년은 가족과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축적되어지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와 조직 안에서 권한 및 의사결정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 내부의 힘을 청소년 스스로 인식하는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획득한 자원으로써의 사회적 자본이 자신이 가진 긍정적 힘을 의식하는 임파워먼트의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주체로서 스스로의 자질을 인식하는데 있어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 주류 청소년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차별 및 편견 등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53][54],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획득한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2.2.3.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youth

구체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와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미비하지만 비다문화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요인들과 심리·사회적 대처 및 학교적응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 다문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와 학교적응과의 인과관계가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

[55]의 연구에서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국외 연구의 경우, 임파워먼트 모델을 적용하여 유색인종 청소년의 심리치료를 한 결과, 우울, 자해와 비행 정도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무엇보다 학교생활의 적응수준이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56], 자기조절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생의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57].

이처럼 임파워먼트는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부정적 정서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연계성을 살펴볼 때, 임파워먼트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도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소외계층의 임파워먼트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통해 학교적응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규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2.2.4.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youth.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역할을 검증하는 것은 임파워먼트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하기 위함이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앞서 제시한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임파워먼트와 학교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미루어 볼 때,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첫째, 청소년이 가정이나 학교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규범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58]과 둘째, 청소년 개인 내적으로나 대인관계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획득하게 되는 임파워먼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부모와 또래 및 교사, 이웃주민 등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신뢰와 사회적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59], 청소년 단체활동과 자치활동이나 자원봉사 와 같은 사회참여 등의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는데 효과적임과 더불어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52][51].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특정 활동 경험과 사회적 자본 및 임파워먼트, 학교적응의 관계 단편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앞선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를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고, 각 요인들이 학교적응과 어떠한 인과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세 변인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를 통한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있어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의 상호작용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그 관계를 규명해 보고한다.

III. Research Design

1. Target of study

이 연구의 대상자는 D시와, C도 지역 학내,외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에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총 121명을 선정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들이 학교에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기평가 기입(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실시한 후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수거된 121개의 응답자료 중 오류 응답으로 분석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 8개의 자료를 제외한 총 113개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istribut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N=113)

Division	Dtail	N	%
Gender	man	74	65.49
	women	39	34.51
Grade	middle school	68	60.18
	high school	45	39.82
Participating events	soccer	24	21.24
	volleyball	12	10.62
	dodgeball	17	15.04
	table tennis	16	14.16
	jump rope	8	7.08
	swimming	9	7.97
	badminton	13	11.50
	basketball	8	7.08
	etc	6	5.31
participation level (a week)	Once	55	48.67
	two	42	37.17
	over three	16	14.16
Participation period	More than 1 year	55	48.67
	More than 2 year	42	37.17
	More than 3 year	16	14.16

2. Measurement Tools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자가기입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5문항, 사회적 자본 18문항, 임파워먼트 69문항, 학교적응 34문항 등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해 [60]이 청소년에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은 사회적 신뢰 9문항, 호혜적 규범 5문항, 생산적 네트워크 4문항 총 18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역 즉, 개인 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와 관련된 선행연구[61-63]의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성을 확보한 [2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 내적 29문항, 대인관계 27문항, 정치.사회적 13문항의 총 6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개념을 탐색한 [64]의 학교적응 척도를 [65]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설문 문항은 학습활동 8문항, 또래친구 10문항, 교사-학생 관계 9문항, 학교생활 7문항으로 총 34문항이다. 이 척도는 5점 Likert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다는 것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설문지 내용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2.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Composition		Q
Social capital	faith	9
	reciprocal norms	5
	productive network	4
Empowerment	Intrapersonal	29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7
	politics · society	13
School adjustment	learning activities	8
	peer friend	10
	schoolmaster- student relations	9
	school life	7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grade, participating events, participation level, participation period	5
Total		126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χ^2 , GFI, TLI, CFI, RMSEA를 함께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먼저,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chi^2=61.42(df=22, p<.01)$, GFI=.917(≥ 0.9), TLI=.935(≥ 0.9), CFI=.929(≥ 0.9), RMSEA=.071($\leq 0.05\sim 0.1$)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문항의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R)와 분산추출지수(AVE)를 산출하였다. 집중타당도의 구체적인 표준적재량은 .683~.822, 개념신뢰도 값은 .826이며, AVE 값은 .797로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Measurement Variables

Factor	Questionnaire	Standard load	Standard error	AVE	C.R.	α	
Social capital	faith	Q1	.771	.075	.811	.797	.824
		Q2	.689	.142			
		Q3	.731	.210			
		Q4	.723	.132			
		Q5	.683	.095			
		Q6	.742	.175			
		Q7	.717	.104			
		Q8	.802	.201			
		Q9	.739	.164			
	reciprocal norms	Q10	.708	.104	.832	.804	.819
		Q11	.813	.231			
		Q12	.783	.139			
		Q13	.693	.097			
		Q14	.822	.192			
	productive network	Q15	.688	.052	.840	.811	.835
		Q16	.733	.130			
		Q17	.719	.162			
		Q18	.692	.033			
$\chi^2=61.42, df=22, GFI=.917, TLI=.935, CFI=.929, RMSEA=.071$							
Empowerment	Intrapersonal	Q1	.787	.104	.813	.786	.825
		Q2	.822	.184			
		Q3	.785	.124			
		Q4	.776	.109			
		Q5	.801	.213			
		Q6	.796	.162			
		Q7	.754	.104			
		Q8	.802	.241			
		Q9	.835	.206			
		Q10	.680	.091			
		Q11	.759	.062			
		Q12	.827	.103			
		Q13	.699	.102			
		Q14	.732	.191			
		Q15	.821	.231			
		Q16	.796	.205			
		Q17	.833	.261			
		Q18	.824	.229			
		Q19	.782	.182			
		Q20	.693	.004			
		Q21	.799	.097			
		Q22	.810	.186			
		Q23	.838	.264			
		Q24	.796	.211			
		Q25	.798	.182			

	interpersonal relationships	Q26	.804	.172	.835	.799	.826
		Q27	.811	.190			
		Q28	.791	.166			
		Q29	.785	.120			
		Q30	.811	.201			
		Q31	.786	.109			
		Q32	.743	.125			
		Q33	.698	.098			
		Q34	.712	.099			
		Q35	.669	.049			
		Q36	.792	.087			
		Q37	.690	.102			
		Q38	.802	.204			
		Q39	.814	.194			
		Q40	.843	.118			
		Q41	.780	.120			
		Q42	.793	.182			
		Q43	.679	.105			
		Q44	.782	.192			
		Q45	.821	.230			
		Q46	.804	.184			
		Q47	.797	.101			
		Q48	.781	.091			
		Q49	.793	.006			
		Q50	.694	.010			
		Q51	.688	.123			
	Q52	.816	.231				
	Q53	.827	.210				
	Q54	.831	.192				
	Q55	.793	.129				
	Q56	.694	.102				
	politics society	Q57	.816	.121	.815	.803	.817
		Q58	.784	.095			
		Q59	.821	.219			
Q60		.779	.120				
Q61		.694	.097				
Q62		.712	.119				
Q63		.726	.202				
Q64		.738	.128				
Q65		.827	.231				
Q66		.794	.180				
Q67		.788	.094				
Q68		.699	.049				
Q69		.783	.101				
$\chi^2=56.33, df=21, GFI=.922, TLI=.917, CFI=.920, RMSEA=.079$							
School adjustment	learning activities	Q1	.734	.034	.829	.802	.811
		Q2	.718	.154			
		Q3	.803	.215			
		Q4	.791	.124			
		Q5	.779	.143			
		Q6	.713	.113			
		Q7	.784	.098			
		Q8	.803	.185			
	peer friend	Q9	.812	.216	.814	.791	.804
		Q10	.786	.133			
		Q11	.812	.112			
		Q12	.780	.117			
		Q13	.831	.231			
		Q14	.789	.172			
		Q15	.774	.082			
		Q16	.756	.037			
		Q17	.712	.132			
		Q18	.807	.145			

schoolmaster-student relations	Q19	.698	.064	.831	.820	.799
	Q20	.688	.061			
	Q21	.823	.212			
	Q22	.812	.176			
	Q23	.765	.101			
	Q24	.697	.033			
	Q25	.786	.123			
	Q26	.809	.213			
school life	Q27	.811	.154	.805	.793	.817
	Q28	.821	.176			
	Q29	.765	.143			
	Q30	.743	.114			
	Q31	.795	.103			
	Q32	.816	.164			
	Q33	.824	.093			
	Q34	.793	.075			
$\chi^2=51.38, df=19, GFI=.912, TLI=.937, CFI=.929, RMSEA=.074$						

나타났으며, Cronbach's α 값이 최소 .812로 나타나 각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임파워먼트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는 $\chi^2=56.38(df=21, p<.01)$, $GFI=.922(\geq 0.9)$, $TLI=.917(\geq 0.9)$, $CFI=.920(\geq 0.9)$, $RMSEA=.079(0.05\sim 0.1)$ 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중타당도의 구체적인 표준적재량은 .669~.843, 개념신뢰도 값은 .833이며, AVE 값은 .779로 나타났고, Cronbach's α 값이 최소 .816로 나타나 각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 영역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chi^2=56.33(df=21, p<.01)$, $GFI=.922(\geq 0.9)$, $TLI=.917(\geq 0.9)$, $CFI=.920(\geq 0.9)$, $RMSEA=.079(\leq 0.05\sim 0.1)$ 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집중타당도에서는 구체적으로 표준적재량은 .688~.828, 개념신뢰도 값은 .822이며, AVE 값은 .787로 나타났고, Cronbach's α 값이 최소 .819로 나타나 각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Data Analysis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 SPSS 26.0, AMOS 26.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실시하여 확인하였고,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 타당도 확보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고,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V. Results

4.1.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단일차원성이 검증된 각 요인별 척도 간 어떠한 관계와 방향성을 보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Pearson)를 산출했으며, 다음 Table 4.

Table 4. Results of analysis on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Factor	1	2	3	4	5	6	7	8	9	10
	Social capital			Empowerment			School adjustment			
faith(1)	1									
reciprocal norms(2)	.212**(.045)	1								
productive network(3)	.241**(.058)	.204**(.042)	1							
interpersonal(4)	.308*(.095)	.347*(.120)	.377*(.142)	1						
interpersonal relationships(5)	.311*(.097)	.413*(.171)	.408*(.166)	.493*(.243)	1					
politics·society(6)	.297**(.088)	.399*(.159)	.411*(.169)	.415*(.172)	.399*(.159)	1				
learning activities(7)	.231**(.053)	.362*(.131)	.485*(.235)	.461*(.213)	.395*(.156)	.412*(.170)	1			
peer friend(8)	.301*(.091)	.484*(.234)	.397*(.158)	.416*(.173)	.367*(.135)	.402*(.162)	.408*(.166)	1		
schoolmaster-student relations(9)	.220**(.048)	.356**(.127)	.482*(.232)	.389*(.151)	.396*(.157)	.398*(.158)	.376*(.141)	.247**(.061)	1	
school life(10)	.231**(.053)	.477*(.228)	.418*(.175)	.427*(.182)	.417*(.174)	.446*(.199)	.440*(.194)	.213**(.045)	.207**(.043)	1
AVE	.503	.524	.599	.617	.622	.641	.653	.667	.671	.689

** $p<.01$, ** $p<.05$ 주) 괄호안의 숫자는 잠재변수 상관계수의 계급값을 의미함. AVE=평균분산 추출값

에 의하면, 상관계수의 값이 .60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Verification of Goodness-of-Fit of the Research Mode

본 연구에서 여가스포츠 참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 및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45.66$, TLI=.922 CFI=.931, RMSEA=.08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수가 전반적으로 적합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적합도 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Index of goodness-of-fit test for the research model

Overall Index	χ^2	$\chi^2/df(23)$	sig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45.66	1.985	.000	.922	.931	.086
Fit Index Standard		<3.0	> 0.05	≥ 0.9	≥ 0.9	$\leq 0.05\sim 0.1$

4.3. Verification of Structural Model Path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 및 학교적응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Results of analysis on path coefficient of structural model

Structural path	estimate	t	p
Social capital → School adjustment	.597	15.175	.000***
Social capital → Empowerment	.504	13.976	.000***
Empowerment → School adjustment	.398	9.651	.021*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첫째, 사회적 자본은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값은 .597, t값이 15.17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p<.001$). 둘째, 사회적 자본은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값은 .504, t값이 13.976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p<.001$). 셋째, 임파워먼트는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값은 .398, t값이 9.651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p<.05$). 연구모형 경로검증 분석 결과를 구조모형으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4.4. Verification of mediation effect

4.4.1. Verification of mediation effect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66]의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95% CI(.022, .031)는 0을 포함하지 않고, p값이 .014로 나타나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다고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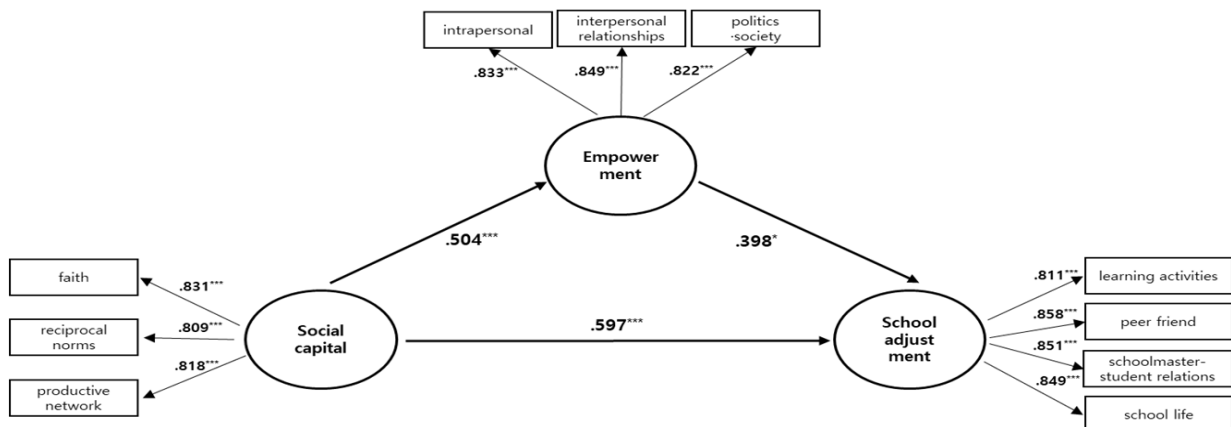


Fig. 1. Verification of structural relations of Social Capital, Empowerment and School Adjustment

Table 7. Decomposi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Effect	Estimate	SE	95%CI (Bias-corrected)	p
a	.597	.020	(.112, .108)	.000
b	.504	.018	(.121, .154)	.006
c	.398	.011	(.076, .109)	.017
b×c	.201	.007	(.022, .031)	.014
Total effect	1.700	.019		

- a. Social capital → School adjustment
 b. Social capital → Empowerment
 c. Empowerment → School adjustment
 b×c Social capital → Empowerment → School adjustment

4.4.2. Comparison of competitive models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파워먼트가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을 부분적 또는 완전하게 매개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분 매개모형 및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χ^2 차이 검증을 하였다. 검증 결과, 자유도 1이 증가할 때마다 χ^2 의 증가가 값이 6.810으로 이 값은 임계비가 3.84를 초과하는 것으로 부분매개 모형이 채택된다. 경쟁모형 비교 검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Comparison of competitive model models for Empowerment

Model	χ^2	df
Partial mediation effect	45.66	23
Full mediation effect	52.47	24

V. Discussion

본 연구는 여가스포츠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 및 학교적응에 어떠한 인과적 관계는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여가스포츠 참가를 통한 임파워먼트가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또래 지지와 다문화 수용성 및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다문화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5.1.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youth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스포츠 참가로 획득한 사회적 자본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여가스포츠 참가는 체력적 기능의 향상은 물론, 교우관계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35]와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같은 학급간의 신체활동을 통해 활발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지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래 사회적 지지가 풍부한 사람이 학교생활 등에 적응력이 높게 유지된다고 연구결과[38]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체육 수업시간에 경험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축구나 야구, 농구 및 배구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소속의식과 또래와의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26]고 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여가스포츠와 학교체육의 참여를 통한 신체적 경험은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윤리의식 및 즐거움을 공유하며 교우관계와 학교 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67]고 하였다. 그리고 여가스포츠 활동 참가를 통해 획득한 바람직한 사회적 유대감은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등을 향상시켜 우울이나 폭력성 및 비행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학내 체육 및 여가스포츠 활동의 참가는 특히 다문화 청소년기 사회적 유대감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에 대한 존중, 학업에 대한 열의와 성취 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5.2.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youth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은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완벽한 여가스포츠 활동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단체활동 및 자치활동과 자원봉사 등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52]고 보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51]에서는 친구와 교사지지, 다른 성인들과 가족의 지지 및 조직의 참여정도 등 여러 사회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16]은 의료소년원생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찾기프로그램이 그들의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고, [68]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인 신뢰는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체활동에서 구성원들 상호간 유기적 신뢰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의 통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69]. 그리고 사회적 지지나 도움을 통해 자신감을 함양하여 내재된 자신의 가능성과 희망의 감정을 가지며, 나아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능력인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70]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증진 시킴으로써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여가스포츠 참가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고 청소년의 내적 강화 능력을 증진시켜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토대로 추후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고 임파워먼트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의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3. The impact of empowerment on the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youth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청소년의 임파워먼트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39][71][72]에 의하면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게 나왔으며 그 중 임파워먼트에 대한 가장 높은 설명력은 학교적응 요인 중 친구적응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개인 내적으로 임파워되면 자기인식 및 자기 수용력에 더 긍정적이며 권리 소유감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39]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이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73]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다양한 환경적 경험이 임파워먼트와 상관관계가 있고,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같은 문제는 이러한 임파워먼트의 고려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정리하자면, 청소년들은 스포츠 참여와 같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삶의 주제로 인식하며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고 학교적응을 제고하기 위해 여가스포츠 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4.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youth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임파워먼트는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분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여가스포츠 참가를 통한 사회적 자본은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임파워먼트를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 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의 진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이를 통해 시민의식이 발달되며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궁극적으로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74].

또한, 조직참여를 통한 사회지지의 경험은 임파워먼트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혔으며 결국 학교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파워먼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보고[75]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청소년에게 있어 또래지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개인 내적 가치관을 강화시킴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며 다양한 가치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

이 중요함을 강조한 연구[76]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 활동으로서의 신체활동을 통한 또래 사이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학교적응에 있어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의 경우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교우관계와 학업과 진로 및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별도의 욕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77], 여가활동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회환경에 대한 거리감을 완화시키고 학교생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78].

청소년에게 있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이나 단체활동으로서의 스포츠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과정이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 하도록 하는 임파워먼트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교적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임파워먼트의 경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가스포츠 참가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은 임파워먼트 및 학교적응 향상의 중요한 변인임을 검증하였고, 더하여 이러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중요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후속연구의 실증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VI.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앞선 연구절차 및 방법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은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의 여가스포츠 참가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획득은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은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스포츠 참가를 통한 사회적 자

본은 임파워먼트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임파워먼트는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여가스포츠라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획득한 임파워먼트가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사회적 자본과 더불어 임파워먼트가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공적 학교적응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의 이론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과 여가스포츠 참가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여 모델을 검증하고 새로운 함의를 도출함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다루어져야 할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의 출신 배경과 구성배경을 고려하여 비례유층표집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적 면담을 통해 내적 경험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된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임파워먼트, 학교적응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추후 동일한 변인을 설정하여 비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비교 분석해 본다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적응의 원인이 다문화적 배경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J. Song, and B. Baek, "An Qualitative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of Elementary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5, No. 1, pp. 699-724, 2019. <http://dx.doi.org/10.24159/joec.2019.25.1.699>
- [2] D. Kim, and Y. Nam, "A Grounded Theory Approach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Sports Program for Multicultural Youth",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Vol. 28, No. 3, pp. 483-495, 2019. <http://dx.doi.org/10.35159/kjss.2019.06.28.3.483>
- [3] S. Yu,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on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Journal of Diaspora Studies, Vol. 14, No. 1, pp. 155-192. 2020. <https://www.riss.kr/link?id=A106907765>
- [4] D. Lee, "The Mediated Effects of Self Esteem,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Multi Cultural Youth",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544-552, 2016. doi: 10.5762/KAIS.2016.17.1.544
- [5] M. Choi, "An Actual State Analysi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 Perception", Master's Dissertation, Seowon University, 2002. <https://www.riss.kr/link?id=T8945795>
- [6] J. Park, "The Development of a Class-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for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2.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
- [7] M. Kim, "[Policy Proposal] The era of cultural diversity, so far and in the future", Monthly Public Policy, Vol. 161, pp. 53-57, 2019. <https://www.riss.kr/link?id=A106085723>
- [8] K. Kim, S. Choi, and H. Lee,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School Adaptation - Focus on Social Capital in Family, School and Communit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5, No. 2, pp. 1-24, 2009. <https://www.riss.kr/link?id=A104048337>
- [9] J. Seo,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Expenditures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dolescents-Evidence from 16 OECD Countries", Docto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http://dx.doi.org/10.20970/kasw.2018.70.2.004>
- [10] J. Kim, "The Effect of Children's Emotional Abuse Experience Level on the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a Moderating Effect of Their Self-Estee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4, No. 3, pp. 286-316, 2014. <http://dx.doi.org/10.15709/hswr.2014.34.3.286>
- [11] J. Coleman,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 1994.
- [12]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3.
- [13] B. Je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11, pp. 29-38, 2012. <https://www.riss.kr/link?id=A99542630>
- [14] I. Lee, "The Effects of Community Participation Factors and Social Capital on Empowerment of Single Moth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3, No. 2, pp. 207-233, 2012. <http://dx.doi.org/10.16999/kasws.2012.43.2.207>
- [15] H. Lee, and B. Kim,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for Poor Children on Their Psychosocial Adjustment: A Research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7, No. 4, pp. 117-142, 2015. <http://dx.doi.org/10.19034/KAYW.2015.17.4.06>
- [16] E. Choi, and H. Yuk, "The effects of the recovery program of the social capital on the empowerment and the social support improvement of juvenile delinquents-For clinic juvenile delinquents",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3, No. 3, pp. 1-22, 2011. <https://www.riss.kr/link?id=A82677148>
- [17] John F. Helliwell, and Robert D. Putnam,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183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Vol. 359, No. 1449, pp. 1435-1446, 2004. doi: 10.1098/rstb.2004.1522
- [18] N. Ellison, C. Steinfield, and C. Lampe,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Vol. 12, No. 4, pp. 1143-1168, 2007. <https://doi.org/10.1111/j.1083-6101.2007.00367.x>
- [19] Y. Min, "The Digital Divide among Internet Users : An Analysis of Digital Access, Literacy,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 48, No. 1, pp. 150-187, 2011. <http://dx.doi.org/10.22174/jcr.2011.48.1.150>
- [20] D. Shah, J. McLeod, and S. Yoon, "Communication, context, and community: An exploration of print, broadcast, and Internet influences", Communication research, Vol. 28, No. 4, pp. 464-506, 2001. doi: 10.1177/009365001028004005
- [21] H. Kim, "Development of a measure of Youth Empower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14, pp. 91-113, 2002. <http://www.childwelfare.or.kr>
- [22] F. Turner,(Ed.), "Social work treatment: Interlocking theoretical approach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23] M. Jeon, and H. Lee, "The Relations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nnectednes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 32, No. 1, pp. 67-83, 2011. <https://www.riss.kr/link?id=A87025053>
- [24] D. Dunkley, K. Blankstein, J. Halsall, M. Williams, and G. Winkworth,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el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7, pp. 437-453, 2000. <https://doi.org/10.1037/0022-0167.47.4.437>
- [25] K. Rice, B. Leever, J. Christopher, and J. Porter, "Perfectionism, stress, and social(dis) connection : A short-term study of hopelessness, depression,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honors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3, No. 4, pp. 524, 2006. <https://doi.org/10.1037/0022-0167.53.4.524>

- [26] J. Kim, Y. Kim, and D.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eam Connectedness Scale in Physical Education Class",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Vol. 21, No 2, pp. 103-12, 2014. <http://kasp.sportskorea.net/>
- [27] O. Kim, and J. A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al Support of Sports Activity and Social Activity, Bonds, and Physical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 10, No. 1, pp. 29-41, 2012. <https://www.riss.kr/link?id=A60049619>
- [28] S. Kim,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Sports Clubs as Social Sport Activities on Personal Relationships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39, pp. 887-897, 2010. <http://www.kssls.org>
- [29] S. Lee, "New frame of youth leisure to prevent school violence; school sports club", *Korean Society for Leisure and Recreation Academic Seminar Data Collection*, Vol. 2012 No. 5, 31-38, 2012. <https://www.riss.kr/link?id=A107203660>
- [30] K. Moon, and M. Ja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Bonding, Violence, and Depression of Sports Participating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 19, No. 4, pp. 283-292, 2021. <https://www.riss.kr/link?id=A107978170>
- [31] S. Chung, S. Park, and D. Lee, "Relationships among Sport Commitment of Taekwondo, Ego-Resilience and Problem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Growth and Development*, Vol. 24, No. 2, pp. 1-9, 2016. <https://www.riss.kr/link?id=A103526655>
- [32] S. Lee, D. Won, and S. Park,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Physical Education,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Social Connectedness, Violence, and Depression of Adolescent",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65, pp. 411-422, 2016. <http://dx.doi.org/10.51979/KSSLS.2016.08.65.411>
- [33] H. Lee, "The Effects of Juveniles' Participation Experience in School Sports Club League on their Ego-Resilience & Empowerment",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5. <https://www.riss.kr/link?id=T13819382>
- [34] Y. Lee, "The Effect of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on the Relationship among Youth Empowerment, Bullying and Suicidal Desire",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Vol. 8, No. 4, pp. 15-30, 2012. <https://www.riss.kr/link?id=A99546535>
- [35] Ministry of Education, "2016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school sports club activities", 2017. <https://if-blog.tistory.com/6972>, (2024. 2. 19. Connection).
- [36] H. Shin, "The impact of dance sports activities on the body composition and soci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pp. 1-35.
- [37] J. Lee, "The influence of the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to the morality and the social relationship of the youth",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39, No. 3, pp. 175-184, 2000. <https://www.riss.kr/link?id=A106553544>
- [38] S. Lee, "Relationship between sociality, school adaptation and school violence behavior of school sports club activity participants in middle school", *Master's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2013. <https://www.riss.kr/link?id=T13034772>
- [39] Y. Kim, S. Chung, and S. Yoo, "Effects of Empowermen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0, pp. 163-190, 2007. <https://www.riss.kr/link?id=A75049982>
- [40] S. Lee, and Y. Nam, "Effects of Empowerment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Experienced High Risk Stres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30, pp. 136-161, 2008. <https://www.riss.kr/link?id=A104279725>
- [41] H. Go, "The Influence of Inferiority Complex Occurring in Sports Activities on Adolescent's Ego-identit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2, No. 5, pp. 295-312, 2003. <http://www.kahperd.or.kr>
- [42] S. Kim, "The Influence of the Adolescent'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 Activities on the Perceived Freedom and Self-Identity",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 16, No. 2, pp. 479-494, 2003. <http://www.ksss.org/>
- [43] D. Yeom, "The Effect of Sports Activity Participation Level of Ego-Identity and Social Relationship of Late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2, No. 2, pp. 211-222, 2003. <https://www.riss.kr/link?id=A106550210>
- [44] D. Oh, "Influence of Instructor's Empowerment, Duty Satisfaction through Grand Master's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octor's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2004. <https://www.riss.kr/link?id=T9239949>
- [45] G. Lee, "The effect of CEO's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professional sport team on subordinates'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octo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5. <https://www.riss.kr/link?id=T9745003>
- [46] H. Cho, "The effects of empowerment of member in sports facility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octor's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2005. <https://www.riss.kr/link?id=T9989553>
- [47] S. Shin, and B. Seo,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Peer Relation, School Life Adaptation, and Stress-coping Behavior in Teenag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 10, No. 6, pp. 277-292, 2019. <http://dx.doi.org/10.22143/HSS21.10.6.21>
- [48] H. Kim, J. Choi, and J. Lee, "Juvenile's Inter-Relationship and Adapting School Life: Focus on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Review of Eurasian Studies*, Vol. 9, No. 1, pp. 273-298, 2012. <http://dx.doi.org/10.31203/aepa.2012.9.1.013>
- [49] K. Ko, and C. Nam, "The effects of experiential activity in early adolescence on the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3, No 4, pp. 231-250, 2011.

- <http://cafe.daum.net/youthwelfareorg>
- [50] M. Baek, "A Study A Study on Factors Factors Factors Associated Associated Associated with Social Capital: Capital:focusing on focusing on participation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 NGOs". Doctor's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2005. <https://www.riss.kr/link?id=T10905767>
- [51] E. Namgoong, and Y. Shin, "The Factors Affecting Empowerment of Adolescents -Focused on Middle School Students in Urban Areas of Jeonbuk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 34, pp. 29-62, 2011. <http://www.childwelfare.or.kr>
- [52] K. Kim, and J. Moon, "The Empowerment Practice Case Study about Youth's Pattern of Participation-Focusing on Youth Organization in Jinju Reg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7, No. 2, pp. 81-104, 2005. <http://cafe.daum.net/youthwelfareorg>
- [53] J. Ko, J. Noh, and S. Moon,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Subjective Happiness of the Multicultural Youth and Moderating Effects of Intercultural Competence", *Forum For Youth Culture*, Vol. 62, pp. 5-28, 2020. <http://dx.doi.org/10.17854/ffyc.2020.04.62.5>
- [54] J. Jung, and D. Le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among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Identifying latent classes and testing the impact of both neglectful parenting and supportive friendship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32, No. 1, pp. 57-85, 2021. <http://dx.doi.org/10.14816/sky.2021.32.1.57>
- [55] Y. Kim, "Effects of Empowermen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06. doi:10.23169/cau.000000009027.11052.0000282
- [56] D. Querimit, and L. Conner, "Empowerment psychotherapy with adolescent females of col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59, No. 1, pp. 1215-1224, 2003. doi: 10.1002/jclp.10212
- [57] T. Cleary, and B. Zimmerman, "Self-regulation empowerment program: a school-based program to enhance self-regulated and self-motivated cycles of student learning", *Psychology in the School*, Vol. 41, No. 5, pp. 537-550, 2004. <https://doi.org/10.1002/pits.10177>
- [58] T. Kim, A. Kim, N. Kim, B. Lee, and J. Han, "(The) study of measuring citizenship for developing social capital", Seoul: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https://www.riss.kr/link?id=M9295559>
- [59] D. Yoon,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Adolescent's Civil Consciousness",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3. <https://www.riss.kr/link?id=T13076782>
- [60] S. Ha, "The Effect of Youth's Civic Engagement on Their Citizenship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Doctor's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2013. <https://www.riss.kr/link?id=T13090064>
- [61] E. Cox, and R. Parsons, "Empowerment-oriented social work practice with the elderly",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4.
- [62] M. Zimmerman, "Psychological Empowerment: Lssues and Illustr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3, No. 5, pp. 581-599, 1995. doi: 10.1007/BF02506983
- [63] B. Bolton, and J. Brooking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rapersonal Empowerment",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43, No. 2, pp. 3-21, 1998. doi: 10.1037/0090-5550.43.2.131
- [64] K. Lee, "A Study of Middle-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Construc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Vol. 17, No. 2, pp. 383-398, 200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5624>
- [65] S. Shin, "The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al Conflic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octor's Dissert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2020. <https://www.riss.kr/link?id=T15549919>
- [66] K. Preacher, and A. Hayes,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0, No. 3, pp. 879-891, 2008. doi: 10.3758/BRM.40.3.879
- [67] K. Seo, "The research for the values of youth's basketball club activities", *Philosophy of Movement*, Vol. 16, No. 2, pp. 115-128, 2008. <https://www.riss.kr/link?id=A104189132>
- [68] B.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Organizational Capital Types, Empowermen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octor's Dissertation, Pai Chai University, 2008.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
- [69] M. Min, S. Yi, and O. Le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from Divorced and Non-divorced Families", *Human Ecology Research*, Vol. 43, No. 11, pp. 109-125, 2005. <http://www.khea.or.kr>
- [70] Y. Choi, "A Study on Tendency and Related Factors of Depression Experienced by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07.
- [71] P. Yu, "The Effect of Empowerment on Friendship and School Adjustment i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9, No. 1, pp. 180-205, 2011. <https://www.riss.kr/link?id=A105016225>
- [72] J. Park,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the youth in broken families : focused on the empowerment element", Master's Dissertation, Kyung Sung University, 2000. <https://www.riss.kr/link?id=T10931822>
- [73] M. Kwak, and S. Moon, "A study on Ecological Factors that Affect the Empowerment on Youths. -Focused on family Life satisfactio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Leisure-tim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3, pp. 215-246, 2011. <http://www.kyra.or.kr>
- [74] S. Kim, and K. Yun, "Estimating adolescents'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Tests of the effects of facto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uch chang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7, No. 2, pp. 271-294, 2016. <http://dx.doi.org/10.14816/sky.2016.27.2.271>

- [75] H. Kim, “Mediator Effect of Empowerment on Readiness for Self-sufficiency of Poor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6, No. 3, pp. 135-157, 2004. <http://www.kasw.org>
- [76] M. Kim, “Study of Youth's Community Awareness Impa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Vol. 4, No. 2, pp. 36-64, 2014. <https://www.riss.kr/link?id=A100494969>
- [77] H. Son, and N. Shin, “Longitudinal Stability and Reciprocal Effects among Adolescents’ Perceived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7, No. 12, pp. 343-372, 2020. <http://dx.doi.org/10.21509/KJYS.2020.12.27.12.343>
- [78] J. Shin, “Korean Adolescents’ Trust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cusing on the Openness of School Climate”,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7. <https://www.riss.kr/link?id=T14385338>

Authors



Byung-Jun Cho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Health Science and Physical promotion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95, 1997 and 2003, respectively.

Dr. Cho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EMT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amcheok, Korea in 2010.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M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Health care and emergence care.



Moon-Sook Lee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97, 1999 and 2005, respectively.

Dr. Lee joined the Instructor of the Department of Sport Science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in 1999. She is interested in Leisure & Recreation and Therapeutic Recreation.